

# 부산 센텀시티

100% 최첨단 미래도시,

Centum City

센텀시티는 군용 비행장이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 변 1,178,043 제곱미터 (35만 평)의 터에 조성된 정보통신·영상·오락·국제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이다. 부산 국제 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두레라움)과, 전시 및 회의 시설인 벅스코(Bexco)가 있고, 수영강 가에 APEC 나루 공원도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 및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부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Centum City

먼저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의 위엄을 느껴보기 위해선 <영화의 전당(두레라움)>에 방문하면 된다. 두레라움에는 3개의 영화 상영관과 1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작은 지붕 아래에 큰 스크린이 설치된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이 있다. 매년 10월에는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부산 국제 영화제'가 열려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센텀시티 내 곳곳의 영화관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만나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아시아의 4대 국제회의 도시라는 명성의 중심에는 <벅스코(Bexco)>가 있다. 벅스코를 중심으로, 벅스코-관광·쇼핑-호텔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통해 참가자들의 욕구를 동시 충족시키기 위한 '부산 마이스 복합지구'를 건설 중이며 벅스코 주차장에 광장을 만들고 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부산 마이스 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세계 10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발돋움 중이다. 또한 벅스코에서는 2017년 까지, 매년 11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가 개최된다. 전 세계 많은 업체가 참가하고 30만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전시회인 만큼 '게임 부산'으로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될 길 기대해 본다.

홍콩의 아성을 위협하는 쇼핑·관광의 메카로서의 센텀시티를 즐기기 위해선 <신세계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를 빼 놓을 수 없다. 기네스 기록에 올라 있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여러 매장 뿐 아니라 온천, 찜질방, 아이스 링크, 실내 골프장,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백화점 고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먹고 놀고 쉬는' 위락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곳은 백화점 공사 중 온천이 발견되어 설계를 변경한 행운의 건물로 1층에 위치한 온천은 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며 13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어 조용하고 힐링에 적합하다.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를 모색하는 센텀시티는 <부산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CCC)>를 준공했다. CCC는 창업 초보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의 더 큰 도약에도 기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 기업뿐 아니라 서울 등 역외 기업을 유치해 영화 및 영상, 게임 산업 등 문화 콘텐츠의 창작, 제작, 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구상되었다.

센텀시티의 창조 문화 클러스터로서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내 산업용지, 주거단지, 상업시설이 집약되어있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의 여가시간은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는 높아졌다.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더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인의 복잡해진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센텀 시티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유희가 가득한 다채로운 공간은 한 지역 내에서 까다로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준다. 여러 문화 산업과 서비스 공간이 모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센텀시티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센텀시티의 또 다른 강점은 변화무쌍하게 작동하는 생기와 유연함이다. 부산하면 부산 갈매기, 자갈치 시장이라는 부산의 향만·물류도시의 이미지는 빨간 봉투를 머리에 쓴 야구 응원이나 불꽃 축제, 부산영화제와 같이 문화 도시의 이미지로 발전하더니 최근엔 문화·관광 뿐 아니라 영상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센텀시티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창조 문화 클러스터로 진화 중이다. 센텀시티의 유연함은 어떤 한 가지에 경직되거나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영화, 게임, 관광, IT 산업 등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생하고 이는 도시에 생기를 부여한다.

센텀시티는 라틴어로 100(일백)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센텀(Centum)에서 유래한다. 100% 완벽한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센텀시티는 전시 및 영화, 공연장, 정보기술(IT) 중심지로 새롭게 단장되며 21세기형 산업 혁명의 선두에 서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기에 센텀시티의 100% 완벽한 미래 도시로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